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中心으로 醫學史에 關한 研究

洪性範* · 金敬堯* · 洪淳用*

I. 緒 論

人類歷史가 始作되면서 醫學도 必然的으로 成長發展해 왔다고 하겠다. 오랜 歷史와 傳統을 이어온 醫學의 變遷史를 記錄한 것이 醫學史이며 이에 東武 李濟馬는 그의 著書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醫學 三千年史를 始興, 中興, 復興의 三段階로 分類하고 그 時代의 背景과 思想的 潮流를 簡明하게 敘述하였다.¹⁾

本來 東洋醫學은 內經說을 基礎로 學理가 이루어 졌고 後漢 時代에 와서는 張仲景이 傷寒論을 著述하므로 비로소 醫學體系가 確立된 것이다.²⁾

傷寒原理는 첫째 陰陽의 相對的 認識을 第一義로 하고 內經의 陰陽觀이나 易理에서 말하는 陰陽觀과는 달리 오직 病情에 限定된 陰陽觀에 지나지 않으며 假令 陽證일 경우는 熱性病으로 看做하고 陰證일 경우는 寒性病으로 表現하는 것 들이다. 陽證은 體溫이 上昇하고 代謝機能이 亢進된 狀態를 말하며 陰證은 體溫이 下降하고 精力이 減退된 狀態를 말한다.³⁾⁴⁾⁵⁾ 이와같은 理論이 成立되므로 醫學의 길은 始興하게 된 것이다.

이후 魏·晉의 南朝時代와 後魏의 北朝時代를

거쳐 隨·唐의 諸醫들이 繼承해왔고 宋代에는 徽宗朝에 朱肱이 傷寒論을 補完하여 龐大한 南陽活人書 22卷을 著述하므로 비로소 醫學은 中興을 이루게 되었다.⁴⁾⁵⁾

그러나 金·元·時代에 와서는 다시 內經說, 難經說을 基礎로 陰陽五行說, 臟腑經絡說, 運氣說등이 새로운 學理를 樹立하였으니 所謂 後世醫學이라 하여 元代,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등과 明代 李梴, 饒信등이 繼承해 왔다. 이들을 治療醫學의 始祖로 까지 높이 評價하고 있다.⁶⁾

여기서 特記할 것은 許浚이 傷寒論을 비롯하여 모든 醫書에서 가장 臨床에 基本이 되는 것을 拔萃하여 集大成한 것이 東醫寶鑑이며 이로써 醫學의 길은 크게 復興하게 된 것이다.⁴⁾⁵⁾¹⁷⁾

이와같이 東武 李濟馬의 醫源論이 비록 簡明한 記錄이긴 해도 李¹⁾의 透徹한 史觀은 마침내 四象醫學이란 獨創的 醫學을 創造한 것이다. 著者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中心으로 東洋醫學의 變遷史를 概括的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 研究方法

1) 上古(周·秦 以前)에서 近世(明·清)에 이르기 까지 醫學의 時代의 特徵과 醫家 및 著書를 살펴보고 東洋醫學의 發展過程을 概括的으로 考察하였다.

2) 李¹⁾는 東洋醫學 發展史를 時代別로 始興期·中興期·復興期로 分類하여 敘述하였으며 이에 準하여 考察을 하였다.

2. 研究內容

1) 醫道の 始興期

(1) 春秋戰國時代 以前の 醫學

先史時代의 醫學이 비록 燦爛하였다 해도 오늘날에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⁶⁾ 오직 中國史記에 伏羲씨가 周易八卦를 創始하여 陰陽哲學의 淵源을 이루었다고 하였고 아울러 神農·黃帝가 醫藥을 創始하였다는 記錄이 있다.⁷⁾ 淮南子 修務說에는 神農씨가 百草의 藥效를 가려내어 藥을 發明하였다고 하였으며 劉恕의 通鑑外遊說에는 百姓들이 疾病을 앓아도 藥이 없어 治療를 하지 못하므로 神農씨가 풀과 나무의 맛을 가려내어 治療를 했다는 記錄이 있어 이것이 醫藥이 생긴 最初의 說이다.⁴⁾⁵⁾

또 黃帝 軒轅씨가 臣下 岐伯등과 醫學에 關하여 問答을 한 內容을 記錄한 것이 內經이며 여기에는 사람의 生命에 關한 養生論·臟腑論·經絡論·運氣論에 이르기 까지 廣範圍하게 論해 있다.⁴⁾⁵⁾

(2) 春秋戰國時代의 醫學(B.C. 475~220)

春秋戰國時代에는 學問的으로나 思想的으로 가장 全盛期를 이루었던 때로 文化·社會·經濟的으로 크게 發展해 있었다. 이 時代에는 文擊·醫狗·扁鵲과 같은 名醫들이 나와 人體生理·病理·診斷에 이르기 까지 많은 醫學理論을 定立시켰다.⁸⁾

(3) 秦·漢時代의 醫學(B.C. 221-A.D. 264)

漢代에 와서는 醫學의 體系가 完全樹立되었으니 이중에 重要的 것은 董仲舒의 天人合一說과 陰陽五行說이다. 아울러 張仲景의 傷寒醫學은 八綱·六經·四診과 辨證治法 등으로 理·法·方·藥의 學理가 成立되었다.⁹⁾

그 時代의 醫學의 趨勢라면 內經을 基礎로 하고 理論과 實際가 漸次的으로 結合되었고 疾病에 대한 認識과 病機·病變의 病理를 樹立하였으며 또 藥物과 方劑에도 크게 發展을 가져왔다.⁸⁾ (Table. I 參考)

Table I. 秦漢代의 醫家와 醫著

著 者	書 名
淳于意	診籍
扁鵲	難經
華佗	華佗內事 五卷 華佗觀形察色并三部脈經 一卷 華佗枕中灸刺經 一卷
張機	傷寒雜病論
	治百病方
	神農本草經

2) 醫道の 中興期

(1) 兩晉 및 隋·唐時代의 醫學(A.D 265-959)

이 時代에는 豊富한 經驗을 통하여 病理觀이 樹立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治方도 크게 發展을 하였다.⁸⁾ 특히 그 當時는 醫學이 道教의 影響을 많이 받아 왔음이 特徵이라 하겠다.⁹⁾

西晉時代에 王叔和(A.D. 210-285)는 傷寒·金匱 등을 整理하는 한편 脈經을 著述하였으며 皇甫謐(A.D. 214-282)은 針灸甲乙經을 著述하였고 梁의 陶弘景(A.D. 456-536)은

神農本草經集註와 名醫別錄을 著述하므로 脈學·針灸學·本草學 등의 學理가 完全히 定立되었다.⁹⁾ 이때는 印度 및 西域諸國과 文化的 交流가 頻繁하여 印度醫學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한편 韓國·日本 등에도 漸次 醫學이 流入되기 시작했다.⁸⁾

隋代에 와서는 巢元方이 巢氏病源候論을 著述하므로 病理論의 嚆矢라 하겠고 內容은 素問과 難經에서 理論體系를 樹立한 것이다. 또 隋·唐代에는 孫思邈(A.D. 581-682)이 千金方·千金要方을 著述하였고 王焯가 外臺秘要 40卷을 著述하므로 더욱 發展을 가져왔다.¹⁰⁾

(Table. II 參考)

Table II. 兩晉 및 隋唐 五代的 醫家와 醫著

著者	書名
王叔和	脈經 十卷 脈訣 四卷 脈訣圖要 六卷 脈賦 一卷
皇甫謐	甲乙經
葛洪	金匱藥方 百卷 肘後備急方 四卷
陶弘景	名醫別錄 本草經集注 效驗方 五卷 集藥訣 一卷 養生延命錄 二卷 靈奇秘奧 三卷
巢元方	諸病源候論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三十卷 千金翼方 三十卷
王焯	外臺秘要 四十卷 中藏經 褚氏遺書

(2) 宋代의 醫學(A.D. 960-1276)

宋代에는 주로 儒學의 影響을 받아 醫學도 性理思想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人間을 小宇宙로 看做하고 (天人合一) 이로서 五運六氣說이 나왔고 또 이때는 中國歷史上 가장 文化의 全盛期를 이루었으므로 많은 醫書가 出刊되었다. 太平聖惠方을 비롯하여 聖濟總錄·證類本草 등의 龐大한 著書들이 나왔으며 國家事業으로 刊行된 것도 많았다.⁹⁾

南北朝로 부터 隋·唐에 이르기까지의 醫學發展過程을 살펴보면 주로 內經理論을 基礎로 成立되었으나 宋代에 와서는 傷寒論의 辨證論治思想이 強烈해져서 이에 대한 書籍이 紛紛하게 出現하였으니 成無己의 傷寒論註·傷寒明理論, 龐安常의 傷寒總病論이 있고 韓祇和의 傷寒微旨, 許叔微의 傷寒發微論·傷寒百證歌와 傷寒九十論, 郭雍의 傷寒補亡論, 楊士瀛의 傷寒類證·活人總括과 朱肱의 南陽活人書 22卷이 나오므로 傷寒醫學이 刮目하게 發展을 가져왔다.¹⁰⁾ (Table. III 參考)

Table III. 宋代의 醫家와 醫著

著者	書名
官書	太平聖惠方 太平惠民和劑局方 政和聖濟總錄
趙自化	四時養頤錄 名醫類傳 三卷
許希善	神應鍼經要訣
孫用和	孫氏傳家秘寶方 五卷
龐安常	傷寒總病論 難經辨 主對集 本草補遺
宋道方	全生集
王旼	濟世全生指迷方 四卷

著 者	書 名
唐 慎 微	經史證類備急本草 三十二卷
朱 肱	南陽活人書
許 叔 微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 類證普濟本事方
韓 祗 和	傷寒微旨 二卷
郭 雍	傷寒補亡論 二十卷
楊 士 瀛	仁齊直指方論 傷寒類證活人總括 仁齊小兒方論 醫學眞經 察脈總括 脈訣
錢 乙	傷寒指要 小兒藥證直訣
張 銳	鷄峯備急方 一卷
史 堪	指南方 二卷
董 汲	斑疹備急方 脚氣治法總要 旅舍備急方
劉 昉	幼幼新書
陳 文 中	小兒病源方論 四卷
陳 言	三因極一病證方論
王 碩	易簡方 一卷
沈 應 善	素問箋釋 二卷
嚴 用 和	濟生方 十卷 續方 一卷
張 杲	醫說 十卷
陳 自 明	婦人大全良方 外科精要

宋代醫學은 傷寒論·運氣說이 그 主流을 이루었으나 運氣說은 基本理論의 매우 難澁하여 理解가 어려우므로 發展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후 金·元時代에 와서는 다시 內經說을 基礎로 醫學이 發展하였으니¹⁰⁾ 劉河間(A.D. 1120-1200)의 主火說과 張子和(A.D. 1156-1228)의 瀉下說, 李東垣(A.D. 1180-1251)의 補脾說, 朱丹溪(A.D. 1281-1358)의 養陰說등이 있어 所謂四大學派라 하였다.⁷⁾ 비록 醫學潮流가 相異할지라도 모두 하나의 流派가 形成된 것이다. (Table. IV 參考)

著 者	書 名
成 無 己	傷寒論注 十卷 傷寒明理論 三卷
張 元 素	醫學啓源 珍珠囊 藥注難經 醫方 三十卷
李 杲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用藥法象
王 好 古	醫學元戎 陰證略例 湯液本草 此事難知
羅 天 益	內經類編 衛生寶鑑
劉 完 素	素問要旨 宣明論方 素問玄機原病式 傷寒直格
張 從 政	儒門事親 十五卷

3) 醫道의 復興期

(1) 金·元時代의 醫學(A.D. 1115-1368)

著 者	書 名
朱 震 亨	格致餘論 局方發揮 傷寒辨疑 本草綱目補遺 外科精要新論
戴 思 恭	論治要訣 證治類方 推求師意
王 履	溯回集 一卷
滑 壽	讀素問抄 難經本義 傷寒例抄 診家綱要 十四經發揮 醫韻 本草發揮
危 亦 林	世醫得效方 二十卷
齊 德 之	外科精義 二卷
葛 應 雷	醫學會同 二十卷
葛 乾 孫	十藥神書 醫學啓蒙 經絡十二論
倪 維 德	原機啓微
羅 知 悌	心印紺珠 一卷
賈 漢 卿	鍼經指南 流注要賦 六十六穴流注秘訣
李 慶 嗣	傷寒彙類 四卷 改正活人書 二卷 傷寒論 三卷 鍼經 一卷
紀 天 錫	註難經 五卷
沈 好 問	素問集解 本草類要 痘疹啓微

著 者	書 名
王 珪	泰定養生主論 十六卷
沙 圖 穆 蘇	瑞竹堂經驗方 五卷
杜 本	敖氏傷寒金鏡錄
項 昕	脾胃後論

(2) 明代的 醫學 (A.D. 1368-1662)

上古에서 秦·漢時代와 隋·唐代를 내려오며 또 宋代에 이르기 까지 醫學은 學術的으로 臨床的으로 刮目하게 發展을 가져왔으며 金·元代에는 여러가지 學理를 綜合折衷하여 이른바 後世學派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⁸⁾

특히 陰陽五行說을 基礎로 臟腑機能의 相生相剋 關係와 氣 觀念의 이긴 해도 命門·三焦의 相火說의 學理도 이때에 이루어 졌다.⁸⁾

明代의 醫學潮流는 內經說·傷寒論을 補完하여 成立된 復古思想에 歸依하여 많은 註解가 나왔고 綜合醫書로 六科準繩方, 景岳全書, 醫學正傳이 있고 本草綱目이 나오므로 本草學 發展에 크게 奇與했다. 아울러 針灸大成, 針灸聚英 등 針灸學에도 集大成한 것이 있다.⁸⁾

(Table. V 參考)

Table V. 明代의 醫家와 醫著

著 者	書 名
呂 復	內經或問 靈樞經脈箋 五色診奇眩 切脈綱要
薛 己	薛氏醫案
趙 貞 觀	醫貫 內經抄 素問注 經絡考 正脈論 絳雪丹書 痘疹論

著者	書名
李時珍	本草綱目 瀕湖脈學 奇經八脈考
王綸	本草集要 明醫雜著 六卷 醫論問答 一卷
陳嘉謨	本草蒙荃
繆希雍	先醒齋廣筆記 四卷 神農本草經疏 十三卷 方藥宜忌考 十二卷
劉若金	本草述
盛寅	六經證辨 流光集
凌雲	流注辨惑 一卷
張介賓	類經 三十二卷 類經圖翼 十一卷 附翼 四卷 景岳全書 六十四卷
樓英	醫學綱目 四十卷 氣運類證 四卷
虞博	醫學正傳 八卷 方脈發蒙 六卷 蒼生司命 八卷
徐春甫	古今醫統 內經要旨 二卷 醫學捷經 幼幼彙集 三卷 蠡廣育 一卷
龔延賢	古今醫鑑 萬病回春 雲林神效 壽世保元 濟世全書 種杏仙方

著者	書名
李樾	醫學入門
王機	素問抄 本草會編 運氣易覽 外科理例 痘治理辨 鍼灸問答 推求師意 脈訣刊誤 傷寒選錄 醫學原理
王肯堂	六科准繩 醫論 孕產全書
孫一奎	赤水玄珠 醫旨緒餘 痘疹心印 孫氏醫案
張三錫	醫學六要
萬全	幼科發揮 二卷 痘疹世醫新法 十二卷 養生四要 廣嗣精要 五卷 女科彙要 四卷 痘疹格致要論 五卷 痘疹啓微
李中梓	內經知要 刪補頤生微論 傷寒括要 醫宗必讀 士材三書 本草通源 病機沙篆 診家正眼
徐用誠	本草發揮 三卷 醫書折衷 玉機微義 五十卷
徐謙 汪權	仁端錄 十六卷 名醫類案

著 者	書 名
陳 實 功	外科正宗
馬 蒔	內經素問註證發微 九卷 內經靈樞註證發微 九卷
陶 華	傷寒六書 六卷
方 有 執	傷寒論條辨 八卷
吳 崑	素問注 脈法 十三科證治 砭炳考 醫方考
吳 有 性	溫疫論 二卷 補遺 一卷
盧 之 頤	本草乘雅半偈 十卷

(3) 清代의 醫學 (A.D. 1662-1911)

清代에는 주로 金·元四大家의 醫學思想을 繼承하였으며 각 學派間에 學術的 意見이 달라 혹 補脾니 補陰이니 寒冷, 攻下니 하고 論爭이 紛紛하였다. 外科面에도 正宗派·全生派로 分類되어 있었다.⁸⁾ (Table. IV 參考)

Table IV. 清代의 醫家와 醫著

著 者	書 名
葉 桂	臨證指南醫案 十卷
薛 雪	醫經原旨 六卷
吳 瑭	溫病條辨 五卷
喻 昌	萬意草 一卷
張 璐	張氏醫通 本草逢源 傷寒續論 傷寒緒論 傷寒舌鑑 傷寒兼證析義 診宗三昧 千金方衍義

著 者	書 名
張 志 聰	素問集註 九卷 靈樞集註 九卷
高 世 忞	靈樞直解 素問直解
傅 山	男科 女科 產後編
陳 士 鐸	石室秘錄 辨證錄 洞天奧旨
武 之 望	濟陰綱目 十四卷
汪 淇	箋釋濟陰綱目 慈幼綱目 保生碎事 一卷
函齋居士	達生編 一卷
尤 怡	傷寒貫珠集 八卷 金匱要略心典 金匱翼
柯 琴	內經合璧 傷寒來蘇集 四卷 傷寒附翼 二卷 傷寒論翼 二卷
汪 琥	張仲景傷寒論辨證廣注 十四卷
程 應 旆	傷寒論後條辨直解
馬 倣	馬師津梁 八卷 印機草 一卷
徐 大 椿	難經經釋 神農本草經百種錄 醫學源流論 傷寒類方 蘭臺軌範 醫貫砭 慎疾芻言

著 者	書 名
汪 昂	醫方集解 三卷 本草備要 四卷 素問靈樞類纂約註 三卷 經絡歌訣 一卷 藥性歌訣 一卷 湯頭歌訣 一卷 日用藥物 一卷
程 國 彭	醫學心悟 外科十法
吳 謙	醫宗金鑑
吳 儀 洛	成方切用 十四卷
沈 金 鰲	沈氏尊生書 七十二卷
趙 學 敏	本草綱目拾遺 十卷 串雅內外編 各四卷
祁 坤	外科大成 四卷
王 維 德	外科證治全生集 六卷
高 秉 鈞	瘍科心得集 三卷
吳 師 機	理瀉駢文 一書
陳 念 祖	南邪堂醫書 十五種
陳 復 正	幼幼集成 六卷
周 揚 俊	傷寒論 三注 金匱玉函經 二注 溫熱暑疫全書
余 霖	疫病論 一篇
章 楠	醫門棒喝 四卷
王 清 任	醫林改錯 二卷
呂 震 名	傷寒尋源 三卷
王 士 雄	霍亂論 二卷 溫熱經緯 五卷
陸 懋 修	內經運氣病釋 九卷 內經難字音義 一卷 內經運氣表 一卷 世補齋醫書 三十三卷
唐 宗 海	傷寒論淺註補正 七卷 金匱要略淺註補正 九卷 中西滙通醫經精義 二卷 血證論 八卷 本草問答 二卷

著 者	書 名
張 錫 純	醫學衷中參西錄 八卷
惲 鐵 樵	藥盒叢書

(4) 朝鮮時代의 醫學

우리나라 醫學의 導入은 文獻에 의하면 高句麗 平原王 三年(A.D. 562)에 吳國의 知聰이란 사람이 內外典과 藥書, 明堂圖등을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에 歸化했다는 記錄이 있어 이때로 부터 醫學이 들어왔고 漸次 民族固有의 醫學으로 發展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⁸⁾ 그 후 隋·唐으로 부터 많은 醫書가 들어왔고 中國과 紐帶關係가 깊어짐에 따라 더욱 發展을 가져왔다.⁷⁾

高麗때에 와서는 獨自의 發展을 하였으니 金永錫의 濟衆立效方, 崔宗峻의 新集御醫撮要方과 鄉藥救急方 등이 나왔고 朝鮮時代에 와서는 世宗大王의 卓越한 濟民政策의 一環으로 鄉藥集成方, 醫方類聚등을 編纂하였고 宣祖朝에는 許浚이 東醫寶鑑을 編纂하므로 東洋醫學史上 劃期的인 大革命에 이르게 된 것이다.⁷⁾¹⁹⁾

英祖·正祖 이후 우리 歷史의 暗黒期에도 李圭峻의 醫鑑重磨와 李峻奎의 醫方撮要가 나왔고 劃期的인 것은 東武 李濟馬(A.D. 1837~1900)가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므로 四象醫學이란 새로운 醫學思想이 나왔다.⁷⁾ 人間은 體質的으로 臟腑機能이 虛하고 實함이 있어 이로써 體質이 固定되었으며 體質에는 肺大肝小者를 太陽人, 肝大肺小者를 太陰人, 脾大腎小者를 少陽人, 腎大脾小者를 少陰人이라 하여 體質에 따라 生理·病理·藥理가 確然히 다르다는 理論이 成立되었다.¹²⁾ 이로써 東洋醫學은 더욱 復興 發展하게 된 것이다.

Ⅲ. 考 察

李¹⁾는 醫源論에서 醫學 三千年史를 三段階로 分類하고 大綱을 說明한 바 있다. 書傳에 “若藥 不暝眩 厥疾 不廖 商 高宗時 己有暝眩 藥驗而 高宗 至於稱歎則 醫藥經驗 其來已久於 神農 黃帝之時”라고 하여 醫藥이 생긴지 오래 되어 神農·黃帝 때부터 전해 왔음을 알 수 있으나 그 當時에는 應當 文字가 없었고 오랜 後에 文字가 생겨 漸次 發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神農·黃帝는 中國歷史上 神話時代의 人物이니 만치 實際로 是認하긴 어렵고 李¹⁾가 醫源論에서 指摘한 바대로 醫史學的 確實性은 秦·漢時代에 와서 體系化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黃帝內經·神農本草經은 後漢때와서 神農·黃帝를 假託하여 著述한 것으로 推測된다. 紀元前 三千年이면 象形文字 時代로 推想하게 되며 殷墟가 發掘되고 甲骨文字가 나오므로써 紀元前 千年을 前後하여 文字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⁴⁾⁵⁾

周가 衰하고 秦·漢時代에 와서는 扁鵲이 有名하였고 後漢時 張仲景(A.D.142-220)이 傷寒論을 著述하므로 비로소 醫學의 體系가 確立된 것이다. 傷寒論은 주로 陰陽의 相對的 證候를 大別하고 病의 進行에 따라 六經陰陽으로 細分하여 病理를 樹立하였으니 이로서 醫學은 始興을 이루게 된 것이다.¹⁴⁾¹⁵⁾

張仲景 이후 南北朝·隋·唐代에 이르러서는 많은 醫師들이 繼承해 왔고 이 中에 王叔和(A.D. 210-285)는 脈經을 著述하고 皇甫謐(A.D. 214-282)은 針灸甲乙經을, 陶弘景(A.D. 456-536)은 神農本草經集註를 編纂하므로 脈經, 針灸, 本草의 모든 學理가 定立되었다.⁷⁾

宋代에 와서는 朱肱이 傷寒書를 整理하여 龐大한 南陽活人書 22卷을 著述하였으니 內容에

는 脈診과 經絡證狀에 의한 分經辨證을 重視하였고 아울러 傷寒·溫病·暑病에 관한 病理觀을 詳細히 說明하여 治療에 誤差가 없도록 敘述되어 있다.¹⁰⁾ 朱肱의 活人書는 傷寒原理를 精密하게 整理하였으므로 清代 徐大椿은 傷寒書로서 商陽活人書를 凌駕할 만한 冊이 없다고 높이 評價하였다.⁴⁾ 이로서 醫道는 中興을 이루게 된 것이다.

金·元時代에 와서는 傳統醫學說을 恪守師承하려는 態度를 止揚하고 流派를 形成하였으니 所謂 金元四大家라 稱하였다. 仲景以後 平淡無奇했던 學風을 크게 變易하여 明·清代에 와서는 더욱 學派가 活潑하게 움직였던 것이다.¹¹⁾ 主火說을 主唱한 劉河間은 疾病을 寒冷爲主의 治療를 해왔고 張從正은 主火說을 肯定하면서도 治療原理는 汗·吐·下 三法을 驅使해 왔다. 그리고 李杲는 張元素의 臟腑病機學說을 傳受받아 萬物의 母格을 五行에서 土로 規定하고 모든 疾病은 脾·胃가 虛하여 생기므로 脾胃를 補益함을 原則으로 하였다. 또한 朱震亨은 劉河間의 影響을 받아 왔으나 그의 獨自의 特色은 모든 疾病은 陽이 有餘하고 陰이 不足하여 생긴다고 하여 補陰爲主의 治療原理를 定立하였다.¹¹⁾¹³⁾¹⁴⁾¹⁵⁾ 王好古는 처음 李杲, 劉河間등에게 傳受를 받았지만 獨特하게 本草에 造詣에 깊어 湯液本草를 編纂하였다.⁴⁾ 또한 危亦林은 世醫得效方을 著述함으로 크게 寄與 하였다.⁸⁾¹⁶⁾

明代에서 清代에 이르기까지는 從來 醫學을 繼承敷衍한 데 지나지 않으나 李梴의 醫學入門과 龔廷賢의 古今醫鑑은 醫學史에 길이 남을만한 것이다.⁴⁾ 더욱 許浚의 東醫實鑑은 東洋醫學 近代史에 劃期的인 金子塔이라 할 수 있으니 歷代의 모든 醫書에서 가장 必須的인 것만을 拔萃하여 集大成한 것으로 千秋에 남을 貴重한 醫書이다.¹⁷⁾

IV. 結 論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中心으로 東洋醫學의 變遷과 韓醫學의 發達史를 研究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이 醫學史를 要約할 수 있었다.

1. 周가 衰하고 秦·漢 時代에는 扁鵲이 有名하였고, 그 후에 張仲景이 醫術을 갖추어 傷寒論을 著述하여 一家를 이루었으니 醫學의 길이 비로소 興하게 된 것이다. 張仲景 以後에는 南北朝·隋·唐 時代의 여러 醫師들이 繼承하였고, 宋나라 때에는 朱肱이 모든 醫術을 갖추어 活人書를 著述하므로 醫道가 中興하게 된 것이다. 朱肱 以後에는 元의 李杲·王好古·朱震亨·危亦林 같은 名醫들이 繼承하였고, 明나라 때에 와서는 李樞·龔信등이 모든 醫術을 갖추었으며, 許浚이 經驗한 바를 著述하여 東醫寶鑑을 내니 비로소 醫學의 길이 크게 復興하게 된 것이다.

2. 神農·黃帝 以後 秦·漢 以前까지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傳受하였고, 魏·晉 以後 隋·唐 以前까지의 病證·藥理는 朱肱이 傳受하였으며, 宋·元 以後 明 以前까지의 病證·藥理는 李樞·龔信·許浚이 傳受하였다.

3. 醫家の 功勞와 業績을 따진다면 첫째로 張仲景·朱肱·許浚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李樞·龔信의 次例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64, p.15
2. 朴贊國;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の 六經辨證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4, 1981, p.194
3. 朴憲在; 傷寒論概論, 藥業新聞社, p.127
4. 洪淳用, 李乙活;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社, 1985, pp.95-100, 102-103.
5.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書苑堂, 1991, pp.27-31, p.33
6. 許 程; 東洋醫學史,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5, p.3
7. 金 勳; 韓國 最近世 東洋醫學의 學術的 特徵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論文集, Vol.5, 1982, pp.43-45.
8.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p.22, 37, 88, pp.93-102, 108-109, 116-132, 151-180, 211-226, p.229 pp.237-238, 247-270, p.300, pp.312-341.
9. 李秀玩; 明代 醫學의 特徵, 熙慶韓醫大論文集, Vol.7, 1984, p.392
10. 金泰熙; 宋代 醫學의 學術的 特徵, 慶熙韓醫大論文集, Vol.7, 1984, p.412, 418, pp.424-425.
11. 尹暢烈; 金元時代 醫學의 學術的 特徵, 慶熙韓醫大論文集, Vol.7, 1984, p.441, 450.
12. 崔鍾百; 四象醫學이 東洋醫學에 미치는 醫史學的 意義, 1973, p.1
13.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과 理論批判에 對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9, 1986, pp.271-273.
14. 宋哲鎬; 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9, p.53, 57, 59, 61, 64
15. 鄭遇悅; 漢方病理學 總論,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1988, pp.55-57
16. 韓醫學大辭典;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p.46, 181, 205, 232, 258, 295, 342

17. 許 津;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對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Vol.9, 1986, pp.316-317.
18.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6
19.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66, p.182, 319, pp.458-463, p.466
20. 陳居霖; 中國歷代名醫錄, 現代中醫藥學院, 1977, p.1, 2, 4, 5, 9, 11, 13, 17, 18, 19, 26, 28, 31, 34, 35, 48, 58, pp.50-62, 65-67, 69-75, p.77, 79, 81, pp.83-85, p.87, 90, 96, 99, 108, pp.113-114, p.116, 118, pp.122-123, p.137, 150, 156, 161, 193, 203, 206, 222, 227, pp.237-238, p.240, 242, 243, pp.245-247, 249-250 p.254, 256, 258, pp.260-264, p.267, 269, 273